

표지로 뒤돌아보는

협회보 '환경사랑'이 이번 2007년 겨울호로 50호 발간을 맞았다. 스티로폴 사용의 장점과 재활용 방법 및 현황, 환경성 등을 일반에 홍보함으로써 스티로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1995년 가을 창간 된 '환경사랑'은 상황에 따라 외형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본래의 발간 취지를 살려 계속 그 임무를 다하고 있다.

'환경사랑'은 지난 12년 간 환경칼럼이나 특별기고 등을 통해 환경단체, 언론계, 정부, 업계의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 50여 명의 주장을 실었으며, 70여회의 탐방 및 인터뷰를 통해 스티로폴 재활용업체, 가공업체, 기계업체, 지자체 재활용 실무부서, 스티로폴 사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외의 최신 정보나 자료를 입수해 전달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환경사랑'은 앞으로도 올바르고, 보다 충실한 정보로 독자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999년 3월 협회 홈페이지(www.eps.or.kr)의 개설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사랑' 50호 발간을 맞아 지나간 변화의 발자취를 '환경사랑' 표지를 통해 더듬어 본다. (편집자주)

창간호(1995. 9. 30.)



스티로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창간된 '환경사랑'은 A4판형 8쪽, 격월간으로 발간되었다.



9호(1997. 2. 5.)

특 뉴스 관련 기사를 표지에 내걸고 정보전달에 무게를 두던 '환경사랑'은 9호부터 일러스트의 표지이야기를 도입, 딱딱한 정보지에서 보다 친근한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15호(1998. 6. 24.)



격월간으로 발간되던 '환경사랑'은 좀 더 알찬 정보의 전달을 위해 15호부터 발행주기를 계간으로 바꾸어 발간된다.

10호(1997. 4. 30.)



제3회 AMEPS 총회 및 제4회 아시아태평양재활용회의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환경사랑'은 칼라인쇄를 도입 시각적 효과를 더하기 시작했다.

환경
사랑

‘환경사랑’의 발자취

18호(1999. 3. 30.)

A4판형 8면으로 발행되던 '환경사랑'은 18호부터 B5판 16면으로 변경하여 보다 알차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20호(1999. 10. 12.)

PSP 식품포장용기의 재활용 시범사업을 특진으로 다룬 20호의 표지. 이후 커피라면 용기 등 PSP의 분리수거 재활용이 본격화되었다.



29호(2002. 3. 31.)

그 동안 전 과정을 외주에 의존하던 제작을 29호부터 협회 인력이 직접 기획·취재하고 편집만을 외부에 의뢰하는 체제로 변형했다. 또한 판형을 4×6배판으로 키우고 지질도 약간 고급화하였다. 이 체제가 현재 50호까지 유지되고 있다.



30호(2002. 7. 18.)

“꿈★은 이루어진다.” 서울 월드컵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인 2002년 7월 발간된 30호는 스티로폼 재활용을 55% 달성을 정답하고 있다.



40호(2005. 4. 8.)

탁월한 신신도 유지 능력과 저장성으로 인해 스티로폼상자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한 버섯상자를 표지로 내세운 40호 표지



50호(2007. 12. 31.)

1995년 창간호 발간 이래 여러 차례의 변신을 통해 스티로폼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알찬 정보지로 자란 '환경사랑'은 12년 만에 50호 발간을 맞았다.

